

특별기고

학교체육이 생활체육의 미래다



김창준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체육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건전한 여가로서 뿐만 아니라 건강한 영양섭취와 더불어 건강한 삶을 선사해 준다. 직업과 연령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하도록 하는 데 있어 생활체육만한 여가활동은 없다. 특히 학교체육은 사회 전체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한다. 훌륭한 선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성취모델로서 의미를 가지며, 대규모 국제체육대회에서 뛰어난 성적과 대표선수들의 좋은 이미지는 해당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함과 동시에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교육포커스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에 맞춰져 있다. 국어·영어·수학 등 수능 위주의 학습이 가장 중요한 학교생활로 체육 활동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편성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마저도 다른 수업들로 대

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결과로 지나친 학업위주의 수업에 지친 학생들은 제대로 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일부가 탈선의 길로 빠지기도 하며 사회에 나가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쉽게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나라도 학교체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스포츠클럽 등 동아리활동 등이 즐거운 학교생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통로 역할로 학교생활체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건강한 체력과 더불어 정신적인 안정 뿐 아니라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클럽 활동을 통해 사회성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올해 초 교과부가 중학교 체육 시수 확대 방안을 발표해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체육시간을 확대해 주5일 수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토요 스포츠데이'도 운영하고 있어 그 효과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시생활체육회에서도 학교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어린이·청소년과 아동체육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캠프대회 등을 열어 학교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시교육청과 좀 더 나은 지역 생활체육을 발전 위해 '학생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체육시설 및 인적자원을 상호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과 방과후 체육활동 등 학생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생활체육대회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한 건전한 여가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컴퓨터나 오락보다는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체육활동으로 사회성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생활체육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 스포츠클럽 리그제, 주말을 이용한 '토요 스포츠데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체육인재가 자연스럽게 발굴되고 엘리트 선수들의 저변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스포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발전하는 선진형 체육시스템을 정책적으로 도입 및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제도화되기 위해

선 정부의 체계화 된 지원으로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드민턴, 배구, 축구 등 종목은 장소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체육관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어느 지역은 생활체육환경 개선에 예산도 지원되지 않고 그에 따른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동호인 저변확대에 큰 제약이 따른다고 한다. 다행히 광주시는 생활체육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각각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체육 동호인이면 누구나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생활체육은 이제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벗어나 지역과 나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통해 발전된 국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광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꿈나무들에게 건강한 미래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시생활체육회 회장)

시설

'포스트 엑스포' 단순 위락단지 전략 안 된다

이달 말 확정 예정인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계획안에 여수와 전남 동부권 일대를 해양산업 및 연구개발 메카로 육성하는 '그랜드 플랜'이 빠져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이 엑스포 개최 이후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메카로 급성장한 예에서 보듯 여수도 사후활용 계획에 이런 플랜이 포함돼야만 동북아 해양관광산업 허브 육성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엑스포 사후활용 계획에 여수엑스포 사이트는 해양레저, 복합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구역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뉘어 활용된다. 하지만, 해양산업 및 연구개발 기반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됐던 복합컨텐츠 분야는 시설 일부를 전시장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것 이외에 눈에 띄는 계획이 없다. 이는 당초 조직위가 제시했던 1, 2차 사후활용 계획과도 상당 부분 배치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1차 계획안에서 조직위는 국내외 우수 해양연구기관을 유치, 연구 및 교육 기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해양전단지연구개발 기업유치, 국제해양전대 확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2차 계획안에도 해양생태환경보전 기술개발 등 해양산업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전략이 들어있다. 하지만, 현 사후활용계획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애초 구상대로 여수가 서남해안 관광산업 및 연구개발 메카로 부상하는 개발보다는 해양관광 및 레저 중심의 위락단지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따라서 사후활용 계획 확정을 연기하더라도 애초 '그랜드 플랜'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 등이 공조, 국토부의 계획 확정에 앞서 이의 제기와 함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정부도 엑스포 특별법을 개정해 법률 근거를 확보하는 등 의지를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시민 혈세 받고도 불친절·난폭운전인가

광주지역 시내버스의 난폭운전 및 불친절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매년 30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운전자의 교통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승차 거부와 불친절, 난폭운전 등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270건에 달한다. 심각한 사안이 아닐 경우 대부분의 승객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민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잇따르는 민원에도 뒤따르는 관계당국의 조치는 '술방망이'에 불과하다. 버스 기사의 불친절, 난폭운전에 대한 광주시의 조치는 특별교육과 경고가 고작이다. 재차 적발되거나 민원 사항이 심각할 때만 자체 조사를 거쳐 경찰에 이첩하는 수준이다. 광주시가 올해 경찰에 이첩한 건수가 5건밖에 안 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물론 버스 기사들의 하소연처럼 난폭과 불친절 요인이 주요 도로의 불법 주차와 교통지체, 정체로 인한 배차시간 압박, 버스 전용차로 부족 등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위협 행위는 많은 불편과 위험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광주시가 막대한 시민 혈세를 들여가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하라는 뜻이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버스업체의 만성적 적회소와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겨우 겨우 6년간 무려 1744억 원을 쏟아 부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운전기사들의 교통의식 변화는 무엇보다 자율적인 '정화'가 바람직하다. 여의치 않다면 '3진 아웃제'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경고나 특별교육 등 '적당'은 이제 안 된다. 그 많은 혈세를 내고도 불친절을 당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은편칼럼



이병우

라면은 어느덧 우리의 정서에 깊게 배어 있다. 어려웠을 때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로부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라면은 우리 곁에 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라면은 필수 짐장품이다. 외국의 웬만한 관광지에는 한국산 라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만리장성일 거든, 스위스 융프라우 정상에 가도 우리 한국산 라면은 여김없이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융프라우를 등반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융프라우 만년설을 바라보며 우리의

라면을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상 정복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는 라면이 때로는 간단한 상찬이기도 하다.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말이다. 융프라우 정상에서 맛본 라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듯이 정상을 차지한 선수와 라면이야기가 결합하면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된다. 한국 최초로 체조부대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 그가 독보적인 양기 기술로 금메달을 딴 것도 빅 뉴스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의 부모가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도 특종잡이었다. 거기에도 양선수의 어머니의 전화 인터뷰가 또 한 번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양학선 선수의 어머니는 "아들, 오면 뭘 제일 빨리 먹고 싶을까? 너구리 라면? 너구리 라면 말고 칠면조 고기 요리 해 줄까?"라

라면의 추억, 라면의 힘

면 등장하여 중장거리 종목을 씩씩이 한 선수이다. 특히 "라면만 먹고 뛰었어요. 우유 마시는 친구들이 부러웠고요."라는 기사를 보고 전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선수다. 하지만 이 기사는 기자의 창작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당시 육상 코치는 열악한 학교 육상부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선수들이 간식으로 라면을 먹는다. 조금 환경이 좋은 학교는 우유도 지원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라면만 먹고 뛴 것으로 각색된 것이다. 사람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난 선수에게 더 열광한다. 양학선 선수는 우리가 바라던 그런 얘기를 전해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라면은 역경을 설명해주는 좋은 이야기감이자 매타포이다. 열대야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해준 런던 올림픽이 끝났다. 훌륭한 성적을 거둔 우리 선수단에게 격려를 보낸다. (광주대학교 교수)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이은선

지방의 청소년들은 서울을 뛰어넘어 세계와 교류하며 경쟁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세계 도시와 교류를 확대해 지방 청소년들이 꿈과 용기를 갖고 국제경쟁에서 글로벌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광주YMCA가 최근 진행한 시애틀YMCA와의 청소년국제교류도 이러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Global-Teens leadership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더 넓은 세

상을 만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10여 명의 청소년들은 교류 시작 전 지구 시민교육과 비전특강을 통해 시애틀에 대해 공부하고 미국을 이해하며, 교류에 참가하여 무엇을 보고 얻을 것인지에 대해 자문하기도 했다. 시애틀YMCA 현지 방문에서는 광주지역 청소년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의젓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문화체험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도 높일 수 있었다. 이번 청소년 교류에서는 특히 네 가지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첫째, 학교방문이다. 빌 게이츠가 다녔던 일류사립학교인 레이크사이드스쿨과 케로 그중학교, 워싱턴 주립대학 방문에서는 현지의 교육환경을 체험하고 한국 학교와 차

이를 몸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직접 수업에 참여하고 학교 곳곳을 둘러보면서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꿈을 그려냈다. 둘째는 시애틀에 본부를 둔 빌 & 멜린다 게이츠재단(Bill & Mellinda Gates Foundation) 방문이다.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에 의해 2000년에 설립돼 국제적 보건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 미국 내 교육 기회 확대 및 정보 기술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재단이다. 나눔에 대한 생각, 나에게도 나눌 것이 있다는 것, 나누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셋째는 홈스테이를 통하여 미국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들의

시애틀을 넘어 세계를 보다

피서철 위생상태 엉망인 숙박업소 '쓰쓸'

최근 전라도 방면으로 가족 피서를 떠나 목포역 부근에서 1박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찾아갔던 숙소 주인에게 숙박할 방을 좀 보여 달라 했더니 불 필요 없다며 무조건 괜찮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열쇠만 주면 잠만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도 문을 열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반드시 봐야 한다는 열쇠를 주었

는데 참 불쾌했다. 왜 고객이 자신이 자야할 방 내부를 보지도 않고 숙박업소의 요구대로 따라야만 하는가. 날씨도 너무 덥고 하니 냉방시설만 되어 있으면 숙박하려 했다. 그런데 선불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안에 와서 보니 정말 조잡하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

방바닥에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머리카락과 이물질들이 보였고 이물도 없는 로션은 바닥이 보일정도의 소량만 있는데다 이미 유효기간 지나 퀴퀴한 냄새가 났고 타올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으며 목욕탕 안은 겹질이 벗겨져 있어 보기에도 흉했다. 심지어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물조차 주지 않았다. 정말 요즘에도 이런 질이 낮은 숙박시설로 손님을 받다니 말도 안 된다. 숙박손님들이 기분 좋게 자고 가게 하여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숙소운영법이라 생각한다.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불쾌한 숙박업소였다. ▲박옥희·부산시 북구 회명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미숙한 시인은 모방하고, 성숙한 시인은 출처를 밝힌다. 나쁜 시인은 자기가 가져온 것을 훗손하지만, 좋은 시인은 그것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든다." 미국 출신의 영국 시인으로서 194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T.S. 엘리엇(1888~1965)가 20세기의 걸작으로 꼽히는 '황무지(The Waste Land)'를 비롯해 자신의 많은 작품에서 사용한 기법을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다.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차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일종의 '창조적 모방'으로 보는 시각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져 왔던 것 같다. 셰익스피어도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라는 작품에서, 바지르 올라탄 클레오파트라를 묘사하면서 예전에 토마스 노스가 번역해놓은 플라투르크 영웅전을 사실상 베껴지만 창조적 모방으로 받아들여져 면죄부를 받았다. 물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진정한 새로운 아이디어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원자론은 예수 탄생 이전에 데모크리토스가 창안한 것이고, 자동설 역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기 1000년 전 사모스의 천문학자 아리스타르코스가 발표한 것이다. 또, 기존의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재발견되거나, 라이오니츠와 뉴턴이 미적분이론을 동시에 발견한 것처럼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도 흔하다. 하지만, 지적인 작품이 '돈'으로 평가받는 현대 상업사회에서 선부른 표절행위는 대중의 관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오히려 '삼류 반칙' 취급을 받게 된 것이 현실이다. 지난주 말 미국의 유명 정치칼럼니스트 파리드 자카리아(48)가 남의 글을 표절한 혐의로 타임과 CNN으로부터 정적처분을 받았다. 당사자는 즉각 시인하고 사과했다. 학자나 정치인들의 표절행위에 비교적 관대한 우리나라지만 전 세계적으로 표절이 일종의 '지적 사기(Intellectual fraud)'로 받아들여지는 추세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삼류 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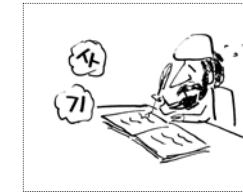


Table with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logo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